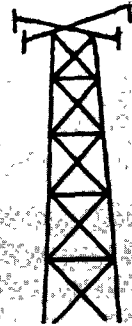


11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78年度

종계 확인 현황 分析

월간 양계 10월호 182P에 78년 9월 25일 현재 종계(P.S) 확인 현황이 발표되었다.

그간 종계문제는 농수산부 당국이 1973년 말 외국으로 부터 종계 도입을 금지하는 일대 종계수급 정책에 전환이 있던 후 계속 업계의 쟁점이 되어 왔었고 77년 말에는 4년만에 다시 종계 수급정책을 바꾸어 외국계가 수입되게 되었다.

73년 외국계 수입을 중지하면서 문제점으로 예견되었던 계통이 불분명한 국산계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 확인이

시작 되었었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종계 확인 수수가 우리나라 종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어 지기를 기대했었다.

이번 10월호에 발표된 산란계 11종 점용종 8종 육용계 11종의 종계(P.S) 확인 현황을 보면 몇가지 이해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이를 기초로 종계현황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1. 산란계

전체 종계중 백색산란계는 22.1%인 379,993수이며 여기에 유색 산란계로 이용될 수 있는것 까지 포함하면 28.1%인 483,103수가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9년도 계란 수요량 48억 5천 백만개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산란계 1수당 180개를 산란하는 것으로 보면 2,695만 수의 산란계가 78년 입식 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종계는 수당 50수 생산으로 계산하더라도 539,000수가 되어 산란용 종계수급이 잘못 되었

표 1. 축산물 수요전망

구 분	단위	'77	'78	'79	'80	'81	'86	
인 구	천 명	36,436	37,019	37,605	38,197	38,807	42,088	
1인당 GNP	\$	8.64	999	1,147	1,317	1,512		
육류 합계	천M/T	295.9	377.7	440.4	492.1	557.4	809.5	
1 인 당	kg	8.1	10.2	11.7	12.9	14.4	19.2	
계 란	수 요	백만개	3,552	4,220	4,851	5,577	6,403	9,722
	1인당	개	97	114	129	146	165	221
닭고기	수 요	천M/T	73.0	88.8	105.3	118.4	135.8	227.2
	1인당	kg	2.0	2.4	2.8	3.1	3.5	5.4
쇠고기	수 요	천M/T	81.6	101.0	118.0	131.9	143.4	198.4
	1인당	kg	2.2	2.7	3.1	3.5	3.7	4.7
돼 지 고 기	수 요	천M/T	141.3	187.9	217.1	242.2	278.2	382.93
	1인당	kg	3.9	5.1	5.1	6.3	7.2	9.1
우 유	수 요	천M/T	254.2	336.1	436.9	568.0	738.4	1,428.5
	1인당	kg	7.1	9.1	11.6	14.9	19.0	33.9

'78 한국축산학회 심포지움 자료

음을 알수있다. 요즘와서 산란용 초생추 구입이 어려운것은 앞으로 공업용 계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계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불량추 생산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계란 생산비의 증가와 업계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73년 종계 수입이 금지된 후 정부에서 장려한 축시 742호나 한협 122호의 입식이 전체의 11.7%에 그치고 있어 양축가의 기초를 잘 설명하고 있다.

73년 3월 모계 암놈 기준으로 2,000수를 마지막 수입한 세이버·스타크로스 에서 생산된 P.S가 114,000수로 가장 많고 78년 수입된 태툼이 1,700수로 가장 적으며 충북의 990수의 강원, 제주는 산란용

종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산란용 종계의 60%가 그것도 대부분의 외국계가 서울 경기에 편중되어 있다.

2. 겸용계

겸용계의 수요는 대개 2가지로 나누어 생각되어 져야 한다.

하나는 갈색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갈색채란계와 다른 하나는 소위 불량추의 대명사 처럼된 왕병아리나(농어촌 병아리) 세미 부로이러 및 삼계탕용을 생산하는데 쓰는 산란계나 이를 생산하기 위한 P.S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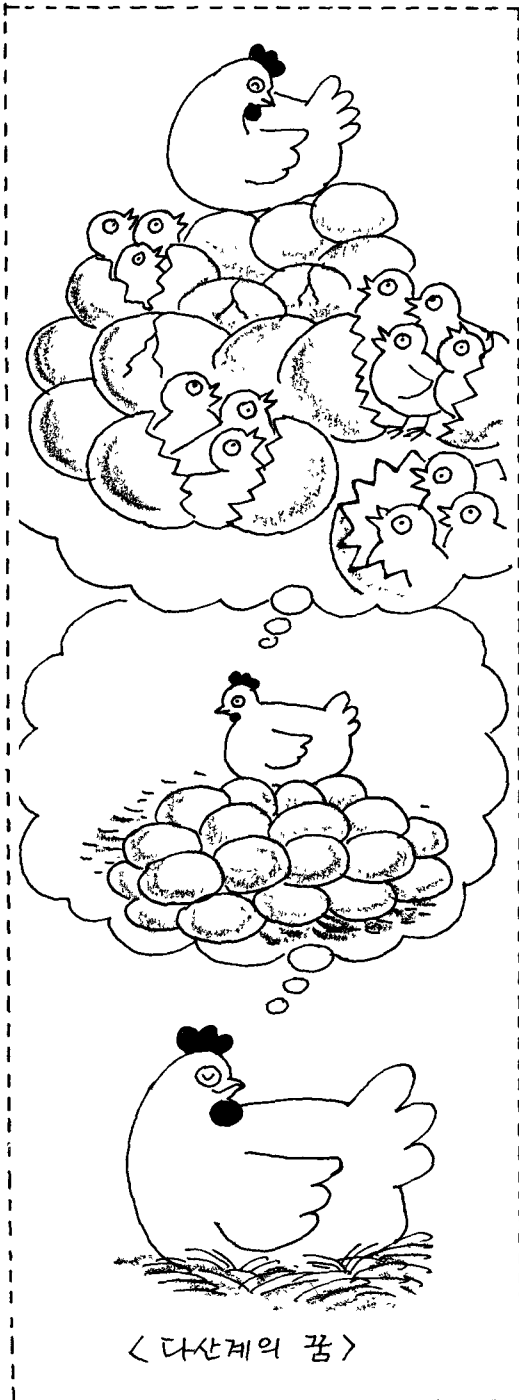
겸용계의 수요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며 매년 그해의 일기등 제반 여건에 따라 크게 다르며 이수수의 증감이 부로일

(1978년 9월 25일 현재)

	서울,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경 북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하 이 라 인							-	-	5,000	11.81
하 이 섹 스	56,582	25.21	-	-	-	-	11,747	20.73	11,905	28.13
야 론	44,020	19.62	-	-	-	-	3,474	6.13	2,000	4.72
야 니 브	16,424	7.32	-	-	-	-	-	-	-	-
세 이 버	85,974	38.3	-	-	-	-	15,620	27.57	-	-
바 브 콕	2,244	1.0	-	-	-	-	8,562	15.12	4,128	9.75
하바드레그혼	-	-	-	-	-	-	-	-	2,000	4.72
닉 칩	11,501	5.12	-	-	-	-	5,138	9.07	2,000	4.72
태 튜	-	-	-	-	-	-	-	-	1,700	4.02
한협 122호	6,246	2.78	-	-	-	-	4,115	7.26	5,650	13.35
축 서 742	1,461	0.65	-	-	990	100	8,000	14.12	7,952	18
소 계	224,452	57.07	-	-	990	0.26	56,656	14.91	42,335	11.14
하이섹스부라운	16,439	20.48	-	-	-	-	6,013	8.11	8,816	11.74
씨 니	13,457	16.76	-	-	-	-	-	-	-	-
하바드코메트	3,319	4.26	-	-	-	-	-	-	16,690	22.23
와 렌	2,500	3.11	-	-	-	-	7,908	10.67	2,983	3.96
한협 325	21,433	26.7	1,120	55.33	500	32.26	24,996	33.72	22,558	30.05
한협 353	7,882	9.82	280	13.33	-	-	14,318	19.31	-	-
한협 333	2,768	3.45	-	-	1,050	67.74	4,238	5.72	-	-
로 드	12,377	15.42	700	33.34	-	-	16,656	22.47	24,017	32.9
소 계	80,275	24.5	2,100	0.64	1,550	0.47	74,129	22.62	75,064	22.91
인디안리버	-	-	-	-	-	-	-	-	1,000	1.34
하이세코	-	-	-	-	-	-	1,532	0.91	-	-
하이브로	55,034	10.04	-	-	-	-	10,948	6.49	8,195	10.94
아 나 크	70,456	12.85	2,016	7.28	8,006	25.47	18,087	10.72	1,900	2.54
로 스	800	0.15	812	2.93	804	2.56	1,156	0.69	-	-
필 취	46,136	8.42	900	3.25	2,630	8.37	15,018	8.90	760	1.02
스디브노	28,681	5.23	-	-	-	-	920	0.55	-	-
하 바 드	84,679	15.44	4,261	15.38	-	-	26,943	15.97	38,521	51.47
한협 899	2,700	0.49	-	-	-	-	-	-	-	-
한협 603	255,728	46.64	19,708	71.16	19,985	63.6	94,059	55.77	22,236	29.71
한협 816	4,050	0.74	-	-	-	-	-	-	2,230	2.98
소 계	548,264	54.42	27,697	2.75	31,425	3.12	168,663	16.74	74,842	7.43
총 계	852,991	49.74	29,797	1.74	33,965	1.98	299,448	17.46	192,241	11.21

증계(P.S) 확인현황

부산 경남		전 북		전 남		제 주		합 계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수 수	비 율
-	-	-	-	-	45.51	-	-	5,000	1.32
6,200	40.31	2,876	9.25	4,100	22.03	-	-	93,410	24.58
-	-	5,460	17.56	2,000	-	-	-	56,954	14.99
-	-	-	-	-	10.79	-	-	16,424	4.32
2,000	12.0	10,121	32.54	980	22.03	-	-	114,695	30.18
1,000	6.50	4,483	14.41	2,000	-	-	-	22,417	5.9
-	-	1,986	6.38	-	-	-	-	3,984	1.05
-	-	2,312	7.43	-	-	-	-	20,951	5.51
-	-	-	-	-	-	-	-	1,700	0.45
2,800	18.21	-	-	-	-	-	-	18,811	4.95
3,380	21.98	3,864	12.43	-	-	-	-	25,647	6.75
15,380	4.05	31,100	8.18	9,080	2.39	-	-	379,993	100
3,267	14.85	2,000	3.73	6,700	40.64	1,000	40.16	43,235	13.19
-	-	2,000	3.73	1,750	10.62	-	-	18,207	5.56
-	-	2,472	4.61	-	-	-	-	22,581	6.89
900	4.09	4,796	8.95	-	-	1,490	59.84	19,087	5.82
9,450	42.94	19,458	36.3	3,815	23.14	-	-	104,820	31.99
-	-	4,816	8.98	800	4.85	-	-	28,096	8.57
1,500	6.82	5,900	11.01	-	-	-	-	15,456	4.72
6,890	31.3	12,163	22.69	3,420	20.75	-	-	76,223	23.26
22,007	6.72	53,605	16.36	16,485	5.03	2,490	0.76	327,705	100
-	-	-	-	-	-	-	-	1,000	0.1
-	-	-	-	-	-	-	-	1,532	0.15
12,300	16.16	3,782	7.32	8,600	16.38	-	-	98,859	9.81
1,800	2.37	6,410	12.40	3,800	-	800	14.68	113,275	11.25
-	-	-	-	-	-	-	-	3,572	0.35
3,700	4.86	3,804	7.36	400	1.72	-	-	73,348	7.28
-	-	-	-	-	-	-	-	29,601	2.94
13,580	17.84	13,861	26.83	900	3.88	-	-	182,745	18.14
-	-	-	-	-	-	-	-	2,700	0.27
40,227	52.86	19,071	36.9	9,506	40.96	3,750	68.81	484,270	48.08
4,500	5.91	4,750	9.19	-	-	900	16.51	16,430	1.63
76,107	7.56	51,678	5.13	23,206	2.30	5,450	0.54	1,007,332	100
113,494	6.62	136,383	7.95	48,771	2.84	7,940	0.46	1,715,030	100



< 다산계의 꿈 >

러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육용종계 입식이 백만수를 넘자 농가용 병아리 수요가 급격히 감퇴하였다.

겸용종 327,705수중 외국계는 31%이고 국산계가 69%이다.

도별로는 서울 경기에 이어 경북 충남 전북등이 겸용계 입식수수가 많아 왕병아리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병아리에 대하여는 한협 816, 899등도 있으나 더욱 농촌 실정에 맞게 개량되어 보급하여야 되겠다.

3. 육용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년도 육용계 수요는 8천 8백 8십만수이며 이중 노계로 대체 될수 있는 2천만수를 제외하면 6천 8백만수이다.

76년도 부터 종계 입식수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백만수를 넘게 되었는데 육용계 초생추의 부족현상이 여전한 것은 농수산부의 닭고기 수요추정이 너무 과소 추정되었고 이로 인해 종계수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에서 비공식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성수기 1日200,000수 비수기 100,000수로 되어 있으나, 세무자료 기타 피해의식으로 실제 수요보다 적게 조사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실수요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업계의 추정으로는 서울시 부로이러 소비량은 1일 평균 15만수로 볼때 서울시만 5천 5백만수로, 육용계 수요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계 입식은 54.42%가 서울 경기에 집중 되었고 다음이 충남 16.74%로 과거경북의 양계가 충남으로 이전한 느낌이 든다

계종 별로 보면 육용계의 경우는 산란계와 같이 환우시켜 종계를 재이용하기가 어렵고 국산육용계의 능력이 일정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부로이러는 2개월 단기사육이라는 특수성으로 국산종계가 50%까지 보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74년 10월 마지막으로 수입한 모종계의 경우, 73,348수가 종계로 확인 되었고 77년에 생산 배부된 PS는 십만수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78년에도 상당수 생산 배부되고 있어 앞으로 종계의 경제수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한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GP S를 볼 수 있다는 농담은 우리가 음미하고 개선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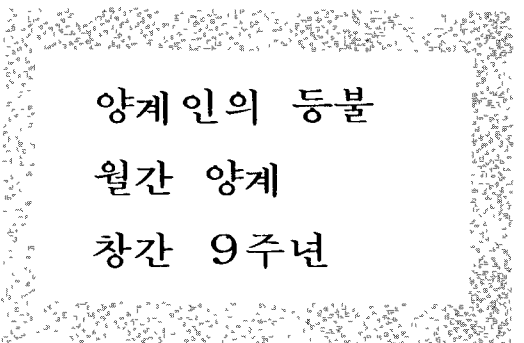
가장 큰 피해는 선량한 양계장이기 때문이다.

종계의 입식 수수의 최소단위가 95수이며 200수 250수등 너무적은 수수로 분양 또는 입식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 되었으면 하겠다.

양계의 규모가 커졌고 너무적은 종계수수는 부화장 경영에 압박은 물론 다른 계종과 같이 부화될 우려가 있고 부화과

정에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부주의로 다른 계종과 섞일 우려등 바람직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하루빨리 시장 기능에 의한 선의 경쟁으로 초생추 품질을 향상시켜 정부의 제제나 간섭이 필요없게 되기를 바란다.



월간양계가 창간된지 강산이 변하는 기간에서 1년이 부족한 9주년이 되었다.

9년전 월간양계가 탄생 될때의 상황을 보면 근대 양계로 발돋움 하려는 전환기의 양계업계에 크게 기술및 산업정보가필요한 시기였다.

일부에서 일본 양계잡지를 통하여 기술 습득을 하였고, 그외는 당시 가금협회의 월례 양계양습회가 기술 정보의 교환 시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습회 참가를 못하는 분을 위한 양계잡지의 필요성은 제고 되었었다. 당시 양계 경영(국판)이라는 잡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축산경영) 독자층이 극히 한정 되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 부화협회에서 월간 양계잡지 발간을 계획하였으나 부화협회의 당시 사정이 잡지를 발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였었다.

표 2. 종계장 규모

도별	종계장주	평균종계	비 고
서울·경기	124	6,879	
강 원	18	1,655	
충 북	11	3,088	
충 남	96	3,119	
전 북	56	2,435	
전 남	11	4,434	
경 북	57	3,373	
부산·경남	30	3,783	
제주	3	2,647	
계	406	4,224	

이때 농수산부는 농수산부 축산국 산하 피보조 단체 통합 작업을 서둘러 양돈협회 한국 홀스타인 등록협회와 가금협회의 능력 검정사업을 한데 묶어 지금의 한국 종축개량 협회를 만들었다.

당시 가금 협회의 주력사업인 검정사업이 종축개량 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가금 협회는 크게 기능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 이었다.

당시 오봉국 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뜻있는 회원의 찬조를 받아 모두가 갈망하던 월간 양계를 탄생시켜 오늘이 있게 한 기틀을 잡았다.

초대 편집 위원장에는 현 축산학회장인 한인규 교수가 편집부장에는 현 퓨리나코리아(주) 지역판매부장 김영옥부장이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당시 경쟁지인 현대 양계를 창간하고 만들던 현 과학사로 신정재 사장도 월간 양계 편집을 적극 후원하는등 초기의 월간 양계는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 졌음을 옆에서 보아 왔다.

초기에는 책이 나오면 항상 일본의 「계의 연구」나 「양계세계」등 일본잡지와 비교하며 우리는 언제 이런 잡지를 만들어 보나하는 생각으로 외국잡지가 한없이 부럽기도 하던시절 이었다.

그후 9년 이제는 폭넓은 집필진, 업계의 성장에 따른 많은 광고 찬조업체, 업계엘리트중진으로 구성된 편집위원의 협조로 잡지제작 직원은 너무도 좋은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밀거름이 되어 주신 초창기 부터의 애독자 발행인 편집인 광고주 제작진 뒤에서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과 같은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잡지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들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앞으로는 9주년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양계지로는 세계의 정상에 오르도록 계속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독자여러분 집필진, 편집위원, 광고주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0일 후부터 서울시내도 육계 유통개선

서울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농수산부 고시 제3006호에 의하여 79. 2. 1일부터 시행될 육계유통 개선에 대해 관계업계의 의견을 듣는 모임을 황인옥 농축과장 주재로 지난 10. 18일 서울 농협 회의실에서 가졌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창림 농수산부 가축위생 과장을 비롯하여 위생계장 서울시 황인옥 농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축산진흥회(신현규 업무부장 참석) 대한 양계협회(오세정 회장 참석) 서울시 축협, 축산기업조합 천호부화장 한 일농원 박병희 부로이러 분과 위원장. 양동환 이사.

성동가금, 호남상회, 우성도계장, 협우도계장, 영육도계장, 한국가금처리협회, 건대유효직박사, 현대양계사, 월간양계에서 참석 하였다.

이날 토의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1. 실시 지역은 서울시 전역으로 하며
2. 간이 도계장은 전지역에 허가하고
3. 축산진흥회에서 대규모 도계장을 건립 또는 민간에 도계장 시설자금을 융자, 보조 하여 주기를 건의하며
4. 대규모 부화장 사료공장도 도계장을 건설하여 육계 유통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는 등이다.

도계유통의 꿈은 76년에 일차 시행하려 하였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구조 미비와 소비자기호 도계장 시설 부족등으로 실패로 끝났었다. 이번 실시 되는 육계유통 개선의 특징은 간이도계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시장내 생계유통을 좀 깨끗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정 면적을 정하고 생계를 밖에서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것 등이 큰 차이이고 기타 도계품



의 검사등도 생략되며 검사원의 수시검사로 대체 된다.

간이 도계장 허가로 일반 소비자의 생계에 대한 기호를 충족시켜 주고 부족한 일반 도계장 시설을 메꿀수 있어 비록 3년 간이지만 저항없이 생계유통에서 도계유통으로 전환 될것 같기도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다음 몇 가지를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렵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이 상주 검사원도 없어 현재 부로이러에 MD백신등도 하지 않고 있고 호흡기 계통 질환이 많은 우리여건으로 불때 과거 허가제가 아닌 자유업일 때와는 일반 매스콤등 사회에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육계가 검사과정에서 불가식품으로 폐기되어 질때와 그대로 시판될 경우의 문제점 등도충분히 연구 되어적야 하겠다.

2. 다음으로 이번의 도계유통이 명실상부한 육계 유통 개선이 되기를 바라며,그렇지 못하고 생계 유통 개선으로 끝날경우 간이도계장이 없어지는 3년후에 생산자는 다시한번 진통을 겪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도 충분히 이점을 고려하겠지만 앞으로 3년이 육계업계의 불안한 3년이 될 경우 닭고기 시장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잠식 당하여 육계업자및 관련사료 제약 유통업계의 실망도 좁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끝으로 소비없는 생산이란 생각할수 없겠다. 닭고기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위생적인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값싸게 대량공급하므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육류 수입을 감소하여 외화 절약과 생산자 보호로 축산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 흔히우리가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위생적인 도계처리에만너무 치우쳐 닭고기 소비가 크게 축소된다면 당초 육계유통 개선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겠다.

지금은 1억불 이상의 고기를 수입해 먹는다는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닭고기 대량소비를 위한 위생적인 도계유통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이룩되도록 서울시 당국은 물론 모두 노력하여야 되겠다.



1. 기왕에 월간양계 8월호 육계유통에 대한 특집에서 지적 된바와 같이 이번 마지막으로 시도되는 육계의 유통개선이 일반소비자에게 도계품이 더욱 위생적이라는 인식이 되어적야 하겠다. 앞으로 3년간 간이 도계장을 통한 육계 유통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어, 현재의 생계유통과 큰차이가 없고, 다만 육계 소매점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우려될뿐이다. 소비자가 도계유통으로 더욱 닭고기가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갖기에는 어